

“사부는 무슨... 젊은 친구들한테 배웠죠”

차인표 ‘집사부일체’ 출연 화제

이승기·양세형 등과 다큐 제작

“레전드였어요. 최고의 촬영이었습니니다. 출연진은 물론이고, 제작진도 다 너무 좋아했어요. 대개는 촬영이 끝나면 시간을 두고 뒷풀이를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다들 촬영 후 그 기분 그대로 이어가고 싶어서 바로 뒷풀이를 즐겼습니다.”

‘레전드’가 된 주인공은 배우 차인표(51·사진). 지난 22일 ‘집사부일체’에 처음 등장해 ‘맛보기’를 살짝 보여줬을 뿐인데 큰 화제를 모았고, 29일 방송에서는 본격적으로 웃음과 감동의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방송 4개월간 ‘집사부일체’가 네이버에 공개한 ‘찐방’들은 대개 1만~3만 뷰를 기록했다. 그러나 차인표 편은 각 ‘찐방’이 10만~20만 뷰를 오간다. 폭발적인 관심이다. 다행(?)히 한주(5월6일) 방송이 더 남았다.



그는 이렇게 대박을 터뜨리고 가족이 머무는 미국으로 갔다. 최근 전화로 그를 만났다.

◇ “내가 무슨 사부? 젊은 친구들에게 배우고 싶었다”

‘집사부일체’는 청춘 4인방 이승기, 이상운, 양세형, 육성재가 다양한 ‘사부’를 찾아가 1박2일을 함께 보내며 깨달음을 얻는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이다. 일단 차인표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제가 누구의 사부가 될 자격도 없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럼에도 출연한 것은 2012년 최영인 CP와 SBS TV 토크쇼 ‘힐링캠프’ 때 맺은 인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사를 얘기하는 것도 싫어해서 ‘힐링캠프’ 출연을 계속 고사하던 차에 최 CP가 제 광고 촬영현장에 오셔서 절기 다리다가 대기실에 놓여있던 (국제어린이양육기구) 캠페인의 후원약정서를 보고 작성하신 거예요.(그는 오래전부터 캠페선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당시 캠페선 후원자가 줄어서 힘들 때라 제가 매일 한명씩만 후원자를 찾으면 좋겠다고 바랄 때였어요. 그런데 부탁도 안 했는데 최 CP가 약정서를 쓰신 것을 보고 감동한 거죠. 그래서 부끄럽지만 ‘힐링캠프’에 출연했고, 나가서도 캠페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방송이 2주에 걸쳐 됐는데, 2주 동안 캠페선 후원자가 무려 1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최 CP에게 마음의 빛이 있죠.”

역시나 이렇게 깊은 사연이 있었다.

“출연을 하기는 했지만 제가 무슨 사부인니까. 네명의 젊은 친구한테 저도 뭔가 배우고 싶었고 그들과 소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서로 동등

한 입장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차인표는 1990~2000년대 인기가 하늘을 찌른 톱스타에, 영화사 TKC픽처스 대표이자 감독 자격으로 ‘사부’가 됐다. 그는 현재 논버벌 코미디 퍼포먼스팀 ‘웬알스’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무대 도전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굿베라스 : 웬알스와 이방인’(가제)의 제작과 공동 연출을 맡고 있다. ‘집사부일체’ 4인방은 1박2일간 차인표와 지내며 이 다큐 제작에 참여했다.

◇ “4인방의 에너지에 깜짝 놀라...두번은 못할 듯”

“어휴, 4인방에게 기를 완전히 빼앗겼어요.(웃음) 두 번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줄 몰랐어요. 참 대단한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 어떤 ‘사부’를 만나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데 순발력도 좋고, 선을 안 넘으면서도 경쟁심을 발휘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4인방과 제작진이 느낀 것은 그 반대다. 차인표가 너무나 우쾌하고 재미있게 4인방을 이끌었고, 4인방이 그런 차인표에 절로 매료돼 따라갔다는 것이다. 또한 중간중간 그가 풀어놓은 진솔한 이야기들은 선하고 진실한 감동을 전해줬다. 최 CP는 “차인표 씨가 4인방을 정말 삼촌처럼,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바라봤고, 4인방도 그것을 느껴서 정말 잘 따랐다”고 전했다.

◇ 영화사 대표·감독으로 새로운 영역 개척

1994년 ‘사랑을 그대 품안에’로 그야말로 장안을 뒤집어놓은 청춘스타 차인표는 어느새 하늘의 명을

알게 되는 나이가 됐다. 20여년간 고여진 경험과 넓어진 시야는 그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고, 그는 영화사 대표와 감독으로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단편영화 ‘50’을 연출했고, 할리우드 기독교영화 ‘해븐퀘스트 : 필그림스 프로그램’에 제작자 겸 배우로 참여했으며, 이제 ‘굿베라스 : 웬알스와 이방인’을 제작·연출하는 것이다.

“우리가 뭔가 하려 하면 흔히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야’. 그런데 막상 해보면 또 할 만해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봐야 새로운 일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영화 연출로 눈을 돌린 계기는 동료배우이자 아내인 신애라가 3남매를 데리고 2014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다. 기독교 상담학으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신애라는 이제 논문을 준비 중이며 논문이 끝나면 내년엔 아이들과 함께 귀국할 예정이다.

“처음 2년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멍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이렇게 지내면 안되겠다 싶던 차에 단편영화를 찍을 기회가 와서 찍어봤고, 그럴 쎈 영상도 제작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도전이 또 다른 새로운 도전으로 이끈거죠. 부끄러웠지만 여기까지 온 거죠. 웬알스 다큐도 처음에는 제작만 하려고 했는데 감독이 사정이 생겨 그만두면서 엄감독이 제가 연출도 맡게 됐어요. 저라도 연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된 건데, 이것도 앞서 단편영화를 연출해봤으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 자연·야생부분 ... ‘녹색동물’ 특별 심사상 부문

EBS ‘다큐프라임’ 휴스턴영화제 2관왕

EBS TV는 다큐멘터리 ‘다큐프라임’의 ‘가족’과 ‘녹색동물’ 편이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각각 ‘자연/야생’(Nature/Wildlife) 부문과 ‘특별 심사 상’(Special Jury Remi Awards) 부문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족’은 인간과 가족의 관계를 상호의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다큐멘터리로, 생태학, 고고학, 인류학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점이 특징이다. 또 인간과 가족의 원초적인 관계가 남는 남미 안데스, 에티오피아의 다나킬 사막, 알타이, 몽골의 최북단 다르하드 계곡 등을 UHD(초고화질) 영상으로 심층 취재했다.

‘녹색동물’은 오대양 육대주의 식물을 현미경 동영상 등으로 생생하게 담았다. 식물이 강한 육광과 본능을 갖고 행동하는 동물의 습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포착한 게 특징이다.



“TV다큐”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탈북자들이 한국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들을 돕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담았다.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휴스턴 국제영화제는 올해로 51주년을 맞았다.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독립영화, 뮤직비디오 등에도 시상하는 종합 영화제다.

연말뉴스

박한별, 엄마됐다

아들 출산 “둘다 건강”



배우 박한별(33·사진)이 엄마가 됐다. 박한별 측 관계자는 30일 “박한별이 오늘 오후 3시 30분 첫아들을 제왕절개로 출산했다”며 “산모와 아이는 모두 건강하다”고 밝혔다.

박한별은 지난해 11월 MBC TV 드라마 ‘보그맘’ 촬영을 마친 후 “임신 4개월”이라

고 밝히면서 ‘예비 아빠’와 혼인신고도 이미 마쳤다고 직접 발표했다.

박한별은 당시 “(결혼)식은 간단한 가족 행사로 대신했다”며 “내년에 조용하게 예쁜 모습을 남기고 싶다”고 밝혔다.

박한별은 한동안 산후조리에 전념할 예정이다.

연말뉴스

TV 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5 KBS 뉴스광장(광주)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국민의 일꾼	25 닥터 365 30 해피시스터즈
9	30 KBS 뉴스 45 KBS 뉴스(광주)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징비록(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슈츠(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천상의 컬렉션(재)	00 속보보는TV 인사이드(재)	30 TV속의 TV	55 닥터 365
2	50 UHD 솜터(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30 뽀뽀뽀 모두가 놀자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5 시사기획 창	00 자동차부활성 위기 2 30 TV유치원	00 판다랑 30 해외특선다큐(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15 무한도전 스페셜	00 SBS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스토에이지 15 영동발전공순이와 친구들 4 30 강재춘헌 배를 트립	00 뉴스콘서트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광주) 1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건문록 남도에 살아리랴 55 지식통조림
7	00 KBS 뉴스 7 30 KBS 뉴스 7(광주) 35 공감다큐.사람	50 인형의 집	15 전성에 왓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고포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살피는 남자들	55 하하랜드 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KBS 뉴스 9(광주) 45 KBS 뉴스 9			
10	00 시사토론 '10' 55 솜터	00 슈츠	0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00 스위차-세상을 바뀌라
11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의 향기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로맨스 패키지 1~2부
12	30 인간극장 스페셜(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40 스포츠 다이아리 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리스 (신삼국지-제3부 간웅, 조조의 재발견)	09:30 물랑 09:40 글로벌 이빨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캠프지 파괴고추조림과 파프리카 된장우침)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올강한 소쌍라 레이 07:30 띠띠뽀 띠띠뽀(재) 07:45 뽀뽀뽀 뽀로로 08:00 동물영 유치원 1~2 08: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8:45 할랄라 뽀우 09:00 똑딱맨 09:15 엄마 까투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점오 뉴스 12:10 EBS 초대석 13:00 지식채널e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40 질문 있는 특강쇼-빅뱅(재) 14:30 너티츠 15:00 호기심 소녀 도트.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16:30 할랄라 뽀우(재) 16:45 동물영 유치원 1~2(재) 17:15 엄마 까투리(재) 17:30 두다다쿵 17:45 뽀로로 뽀로로 18:00 생방송 특집! 보니하니 1~4 19:00 ABU 어린이 드라마 특선 (모두의 모자/점, 나의 자랑) 19:30 EBS 뉴스 19:50 아빠다	20:40 세계테마기행 (아름다운 동화 베트남 3부 오페라로프의 예인들) 21:30 한국기행 (꽃보다 할매 3부 당시 참 예쁘다) 21:50 EBS 다크프라임 (불의 검- 3부 전사의 고백) 22:45 극한직업 (한국의인 소울 푸드, 축발과 흥아) 23:55 질문 있는 특강쇼-빅뱅 (이주희 교수 II) 24:45 지식채널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일(음 3월 17일 甲午)

子 36년생 상오 연결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48년생 행방이 묘연하니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살펴봐야겠다. 60년생 상대의 내수에 넘어갈까 두렵다. 72년생 열렬히 환영 받는다. 84년생 생지속적이야만 성공을 기보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6, 68

丑 37년생 기들이 조정되면서 처리되는 형국이다. 49년생 어려운 경험의 필연이 될 것이다. 61년생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가 있을 것이다. 73년생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매우 불편하리라. 85년생 컷노래가 나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1, 76

寅 38년생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 50년생 우회하여 표현하는 것이 무리 없겠다. 62년생 경험이야말로 국면을 타개하는 최상의 기준점이다. 74년생 가다가 잡힌다. 86년생 상대의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2, 20

卯 39년생 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터지겠다. 51년생 주중에 따라서 선후를 따져야만 하느니라. 63년생 집착하지 말라. 75년생 뒤돌아보는 것이 순리이다. 87년생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앞에서 있는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46, 95

辰 40년생 놀라구가 보인다. 52년생 부하노동하다가 곤란해질 수 있다. 64년생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을 알라. 76년생 표준과 전형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겠다. 88년생 아무리 힘들더라도 인내야만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6, 91

巳 41년생 현실적인 실리가 더 낫다. 53년생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는 날이다. 65년생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77년생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89년생 고귀한 판단이 걸성을 부른다. 행운의 숫자 : 83, 25

午 42년생 희망적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니라. 54년생 실리 위주로 판단해야 할 때이니라. 66년생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이해할 수 있다. 78년생 경험보다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는 것이 정확하다. 90년생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행운의 숫자 : 87, 88

未 43년생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어 있다. 55년생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67년생 노파심은 버려도 된다. 79년생 사제가 종합적으로 집약된다면 능률적이다. 91년생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조처해야 할 때가 도래하였도다. 행운의 숫자 : 32, 62

申 44년생 안정된 마당이 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다. 56년생 이론보다 경험을 우선해야 할 때이다. 68년생 인식하지 못 할 수 있다. 80년생 당황한다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 92년생 생앞으로 복잡해질 것이니 체계를 잡자. 행운의 숫자 : 12, 50

酉 45년생 편견 없는 시각이 필요하다. 57년생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69년생 현재의 판세에만 온통 집중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 81년생 역효과가 날 수있다. 93년생 핵심을 짚어야만 효과가 커진다. 행운의 숫자 : 74, 67

戌 34년생 지리멸렬했던 소강상태를 지나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46년생 매끄럽지 못 하다면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58년생 항상 절대적이지는 않다. 70년생 확실한 변별력이 요구된다. 82년생 준수해야 진행에 차질이 없다. 행운의 숫자 : 91, 03

亥 35년생 사람의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으니라. 47년생 우연한 계기가 필연으로 연결되겠다. 59년생 다양한 가능성의 장들이 열리리라. 71년생 새로운 것에 행운이 깃들여 있다. 83년생 지금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31, 29